

# 2019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 메타비평: 미래를 위한 일

서울시립미술관(관장 백지숙)이 개최하고 하나금융그룹이 후원하는 'SeMA-하나 평론상'이 올해로 3회째를 맞아 8월 1일부터 25일까지 4주간 공모를 진행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비평 공모인 만큼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SeMA-하나 평론상'은 2015년 곽영빈, 김정현, 2017년 남웅, 문정현을 수상자로 배출했다. 올해 서울시립미술관은 'SeMA-하나 평론상'과 연계하여 미술평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서울시립미술관과 『미술세계』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 '메타비평: 미래를 위한 일'은 'SeMA-하나 평론상'의 수상자들을 초대하여, 수상 이후 체감한 동시대 비평현장과 그것이 촉발한 비평가로서의 고민과 주장을 담은 글을 작성해줄 것을 부탁했다. 『미술세계』의 필자로도 익숙한 4인의 비평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라본 한국 미술계의 모습은 여러 비평적 이슈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세계』 7월호에는 1회 수상자 곽영빈과 김정현의 글이, 8월호에는 2회 수상자 남웅과 문정현의 글이 수록되며, '2019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은 『미술세계』 12월 특집 '미술비평진단③'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본 지면은 'SeMA 비평연구 프로젝트'의 포스터 디자인(디자인: 일상의실천)을 기반으로 했다.

# 작은 마니페스토 - 수락과 거부

글·이미지 제공 김정현 미술비평

## 사적인 전야제

어릴 적부터 언어의 마법에 매료되어 소설가들을, 그리고 차차 평론가와 시인들의 글쓰기를 동경하면서도 정작 스스로 그중 하나가 되어보려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상상해 보자. 2015년 12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제1회 'SeMA-하나 평론상' 시상식이 열리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소감을 발표하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비평가는커녕 평론가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미술계에 유독 많은 동명이인 사이에서 새로이 필명을 만들지 않고도 알아볼 만한 글쟁이가 되겠다는 시상식에 어울릴법한 포부를 긴장한 나머지 뒤엀킨 문장으로나마 희미하게 밝혔음에도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음이 분명했다.

수상 이전에 미술에 관해 쓴 글은 미술사 석사 학위를 받은 후 2년간 채 열 편이 되지 못했는데 그중 9할은 『계간 컨템포러리 아트 저널』에 기고할 심산으로 삼 개월에 한 번씩 다가오는 마감을 손꼽아 기다리며 천천히 써 내려간 글이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전혀 비평가의 자의식을 갖고 쓴 게 아니라는 점이며 한때 포스트 마르크시스트 문화연구자를 꿈꾸었다가 미술사에 발을 들였으나 주로 방법론에서 재미를 찾던 신진 연구자가 생존 작가의 작품이나 활동의 메커니즘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철저한 외부인의 시각에서 현장과 안락하게 거리를 둔 채로 또는 파편적인 경험의 기록을 위해 썼다는 사실이다.

소정이나마 원고료를 받는 드문 글쓰기의 기회는 전시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무기한 휴가를 즐기려는 소진된 정신에 재활의 기회가 되기도 하여 잔고가 허락하는 한 기꺼운 마음을 불러일으켰지만 수입 활동 없는 생활에 잔고는 어김없이 바닥을 드러내 보이게 마련이다. 밤낮으로 보초를 서듯 일하다 밤낮으로 무수히 많은 전시와 공연과 영화와 책을 들여다보며 방학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긴 휴가를 보내고 나서 조금 더 많은 글을 쓰고 더욱 더 많은 작품을 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치밀어 올랐던 시기에 한가한 일 자리를 찾다 모집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평론상 공고를 발견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상금이었다. 수중에 2천만 원이 생긴다면 한 2년은 그동안처럼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오직 관람자이자 독자로서 매일을 보내며 감상의 기록을 이런저런 문체에 실어보는 열정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만약 비평이 순수한 호

기심과 열정에서 비롯되는 유희적 글쓰기라면 그토록 충실했던 때 도 없을 것이다.

## 수상(受賞)하고 수상(殊常)한 경험

일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다. 수상은 감지덕지했지만, 공동 수상으로 상금이 절반이 되었고 앞으로 이 년의 전망이 일 년의 전망으로 줄어들어 그는 주제넘게 시무룩해 있었다. 시상식 뒤풀이 자리에서 연륜 있는 평론가 선생이 돈과 유희적 태도의 중요성에 공감해준 일은 위로가 되었지만, 새해부터 시작될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과 위험성 어느 것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미숙한 젊은이에게 한 조언으로서 아직 암시적으로 남아있었다. 2016년부터 글쓰기의 기회는 상금과 여유 시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다양한 지면의 원고 청탁으로 들어왔다. '등단'의 자연스러운 수순마저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는 비평가로서의 희박한 자의식과 더불어 국내 미술글독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면의 종류를 파악하지 못한 탓이었다. 반성하거나 아쉬워할 틈도 없이 수상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16년부터 다양한 지면을 집중적으로 경험하며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제1회 SeMA-하나 평론상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며 2014년 이후 미술계 내 세대교체 담론 및 페미니즘의 부상과 더불어 만 30세에 성급히 등단한 신인 여성 비평가는 과분한 기대를 받았다.

미술 전문지 중에는 『미술세계』가 시상 직후부터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비교적 긴 지면의 전시 리뷰와 다양한 특집 기획에 초대했고, 이어서 『아트인컬처』의 복수 전시 리뷰 코너 필자로 꾸준히 글을 쓰게 된다. 『월간미술』과 『퍼블리아트』에는 드문드문 기고한다. 월간지는 원고지 1매당 고료가 가장 적지만 이들은 시사 일간지를 제외한다면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편집자가 기획자나 작가와 비교적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비평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어쩌면 편집자들이 인간관계에 따라 필자를 매칭하는지도 모르지만, 그의 비사교적인 성격과 일천한 대인관계는 거리감을 갖고 글쓰기에는 도움이 되었다. 비평 대상 선정에 대부분 편집부의 관점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전문지에 쓰는 글은 대다수가 편집부와와 공동 작업이다. 월간지는 필자의 제안에 열려 있었지만 그는 매달 한 편 이상의 원고를 쓰느라 여력이 없었고 월



〈퍼포먼스 연대기〉(기획·연구: 김정현, 연출·무대미술: 송주호),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17, 사진: popcon

간 단위의 전시 리뷰보다 중장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제론의 관심을 풀기에는 매체의 속도와 보상이 마땅치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전문지 이외에 새로 생긴 주요 지면 중에 도록과 레지던시 비평가 매칭글은 미술 비평에 대한 자의식을 갖게 했다. 우선 비평가와 작가의 관계를 고민하게 했다. 그가 이전까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작가의 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었고, 그런 그의 글쓰기는 익명적일 만큼 관계자와 무관한 자율적인 사고의 결과물이었다. 도록이나 레지던시 비평가 매칭글은 주로 작가와 안면이 있거나 인지도가 있는 필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그중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실기 비전공자에게 들어올 만한 일이 아니지만 수상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놀랍게도 그는 수상 이전에 단 한 편도 생존 작가의 작가론을 써본 적이 없으며 작가론 쓰기에 관해 일정한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 비평가로서의 자의식이 자라기 전에 쓴 몇 편의 도록글은 작가 연구나 비평보다 유희적 글쓰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며 작가와의 관계에 관한 아무런 내적 갈등도 담고 있지 않았다.

내적 갈등은 글쓰기가 빈번해지는 만큼 작가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시작되었다. 미술글에서 전시나 작업보다 작가가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레지던시 비평가 매칭글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와 창동레지던시, 서울시립미술관 난지미술창작

센터, 서울문화재단 금천예술공장, 인천아트플랫폼,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등 수도권 레지던시부터 각 지역의 공립 및 사설 레지던시까지 국내에 얼마나 많은 레지던시와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이 있을까. 해마다 한두 건 이상의 매칭에 응하며 작가 연구의 계기로 삼고 있지만, 연구 대상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비평가가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는 한계는 명확하다. 게다가 레지던시 매칭 비평문을 모아보면 필자의 바이네임이 다양한데, 사실 작가 연구의 차원에서는 비평가든 큐레이터든 미술이론가든 입장과 관점에 별다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성실한 연구, 친밀감 속의 적절한 거리감, 섬세한 언어적 표현이라는 과제는 모두가 공유한다. 우연히 비평가의 바이네임(byname)을 달게 된 그는 목하 비평가 특유의 자의식이 얼마나 허구적인가 의심하며 비평가의 변화한 역할과 정체성을 모색하면서도 여전히 비평가의 특정성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상태로 자의식을 구축해가고 있다.

### 작은 마니페스토 - 수락과 거부

죽은 미술가를 연구하는 미술사는 판단을 지연한 만큼 사고의 정제를 보장하고, 작가의 면전에 평가를 내미는 미술비평은 한동안 확신과 의심을 오가며 혼란 속에 수용된다. 시간이 말해주는 것이 있고 시간이 말해주지 못하는 것이 있다. 산 자들의 세계에서 양자를 오가는 비평은 오래 남거나 폐기되겠지만 운명이야 어찌 됐든

나의 3년 반 동안의 짧은 비평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마니페스토를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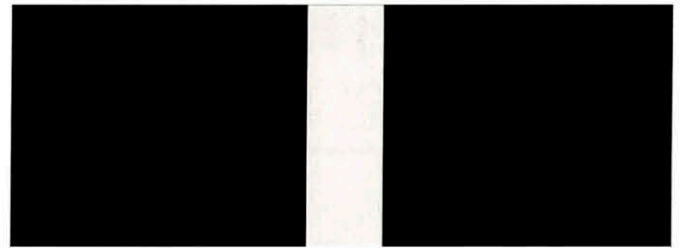
### 하나. 선택 자오선 당기기

사고와 글쓰기를 위한 선택의 다양한 국면에서 생략되거나 배제된 지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비평가는 발터 벤야민의 말마따나 언제나 “문학투쟁의 전략가”이다. 모든 비평가가 그리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통찰력과 판단력이 필요하며, 실전 경험이 부족한 신진 비평가가 처음부터 겨룰 수 없는 대상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경험과 정보와 함께 적절한 자의식과 책임감을 키우지 못한다면 순진하여 해로운 존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글쓰기를 주기적으로 돌아보며 선택의 자오선을 가늠하며 조금씩 앞당겨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비평 지면의 관습을 개선하는데 개입할 기회를 함께 찾아야 한다. 작가 지원 중심으로 편향된 공적 비평 체제에 침투하여 논쟁적인 공론장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날마다 확장하는 눈에 띄는 전선과 매우 고립되어 희미해진 전선이 있다. 복지 정책과 페미니즘은 전자에 해당하고, 감각과 판단은 후자에 해당한다. 양자를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소외된 영역에 제 몫을 돌려줄 언어를 다시 소외시키지 않는 구조를 구상해볼 것.

### 둘. 비평과 기획의 겸업

전업 비평가는 없다. 비평가는 모두 겸업한다. 다수가 교육자고 숨겨진 다수가 기획자다. 특히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비평가와 기획자의 입장은 더욱 더 동질적이 되어가는 듯하다. 전시 기획은 비평에 중요한 지면을 제공하며 비평가는 종종 작가나 기획자의 대리인처럼 언어를 구사한다. 대리인을 구하는 대신 비평과 기획을 교차 수행하는 이들이 있다. 나의 경우, 결코 의도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SeMA-하나 평론상 공모전 자유글 과제로 쓴 글 「퍼포먼스의 감염 경로는? — 퍼포먼스 예술의 동시대성을 찾아서」(2015)는 같은 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차세대(AYAF) 큐레이터로 선정되어 만든 극장/연극성에 관한 전시 《연말연시》(인사미술공간, 2015)와 함께 미술에서의 퍼포먼스를 주요 화두로 던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비평가이자 기획자라는 이중 커리어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다.

자유글에서 주요하게 언급한 작가 김구림과 정금형을 수상 전후에 각각 인터뷰와 개인전 리뷰로 다루고 퍼포먼스를 표방하거나 극장에 간 미술가의 작업을 사후 감상하고 비평하면서, 한국 1세대 퍼포먼스를 동시대적으로 해석하고 재연하는 극장 퍼포먼스 <퍼포먼스 연대기>(2017)를 기획했다. 2015년에 쓴 자유글은 면접에서 밝혔던 대로 일종의 연구계획서로 작동하며 후속 비평과 기획



##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 Change Nothing

기획 : 김정현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Change Nothing)〉(기획: 김정현),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2016

으로 확장되었다. 한동안 그리고 당분간 상금이나 원고료 기약 없이 써왔으며 쓰게 될 자유글은 한국 또는 서울 미술계에 대한 비평적 관점으로부터 길어 올린 또 다른 연구계획서가 되어야 한다.

### 셋. 미술의 속살을 감싸는 비평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비평가 기획자 모델이 낯설지 않더라도 한국 동시대 미술 현장에서 선행자들을 발견하고 현재 유효한 비평가 역할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비평가 기획자 모델을 의식화하는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프로젝트(2016/2017)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2016, 문래예술공장)는 먼저 계획했던 비평문의 아이디어를 모두 공연으로 대체하고 책 껍데기에 간단한 서문만 남긴 기획이지만, 비평의 대체 가능성을 선언하기보다 수행적 비평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수행적 비평이 기획의 형식을 빌릴 때 비평이 기획으로 대체 가능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키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기획에는 더없이 충실한 비평문이 따라야 한다. 미술에서 비평은 새삼 위기에 처할 만큼 성공해본 적이 많지 않다. 아직도 쓰여지지 않았거나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비평이 많으며 과제가 한없이 지연되는 동안 망각되는 것들이 생길 뿐이다. 비평의 부재 선언이 대책 없이 비평을 무한 대체하려는 속도의 관념에 사로잡혀 미술의 살갓이 모두 까지기 전에 넓은 시야로 정확한 글을 부지런히 써야 한다.▣